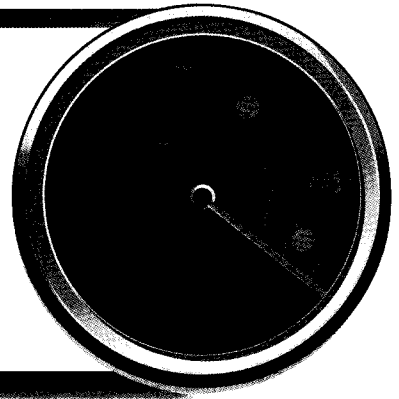


#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모수종 | (사)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세계 Top 10에 국내 업체가 7개사가 포함될 정도로 선박 건조, 선박용 엔진, 선박용 프로펠러 및 축계, 선박용 발전기 등의 분야가 모두 세계 1위이다.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선수주량은 세계 조선수주량의 38.3%이며,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0.2%인 432억 불이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33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378억 불의 흑자를 기록해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고, 중국이 수주량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선박 건조 단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첨단기자재는 유럽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조선산업은 신에너지, 레이저, 화물운송용 선박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해양 공간 활용의 다양화 및 IT첨단기술 혁명을 이용한 획기적인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조선환경의 변화와 국내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1위의 조선산업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IT기술을 접목해 핵심기반기술과 신개념 제품을 개발하고, 차세대 선박 및 해양기술을 확보하여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해적에 의한 선박 나포와 서해상에서의 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선박의 안전과 안전항해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2년부터 전자항법체계(e-NAVIGATION)를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NAVIGATION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보안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항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선박과 육상의 해상정보를 일관성 있게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항해를 목적으로 기존 항해장비와 새로 개발되는 항해장비 및 전자장치를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용하는 선박운항 체계이다.

해운선진국에서는 e-NAVIGATION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많은 연구와 실적을 쌓아 시장선점을 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NAVIGATION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조선과 IT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제5차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에서 10대 IT

융합 미래전략 중 IT조선 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민간기업 중심의 사단법인 한국선박전자진흥협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 2.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소개

### 2.1 설립 취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박기계 분야의 발전과 함께 선박전자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 선박이 전자화 및 IT화 되면서 조선분야에서 선박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선박전자산업을 선박기계 산업과는 별도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오늘날 선박 및 IT조선 융합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박전자 산업을 조선 및 선박기계 산업과는 별도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선박전자 및 IT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때이다. 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서는 e-Navigation 시대에도 세계 조선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두가 합심하여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선해양환경의 변화 속에 조선기계 분야의 1위뿐만 아니라 선박전자 및 IT융합 분야에도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가 창립되었다. 앞으로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회원사 모두는 선박전자와 IT융합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IT융합 기자재를 생산해 조선일 등국을 유지하고 국가경제발전에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2.2 목적 및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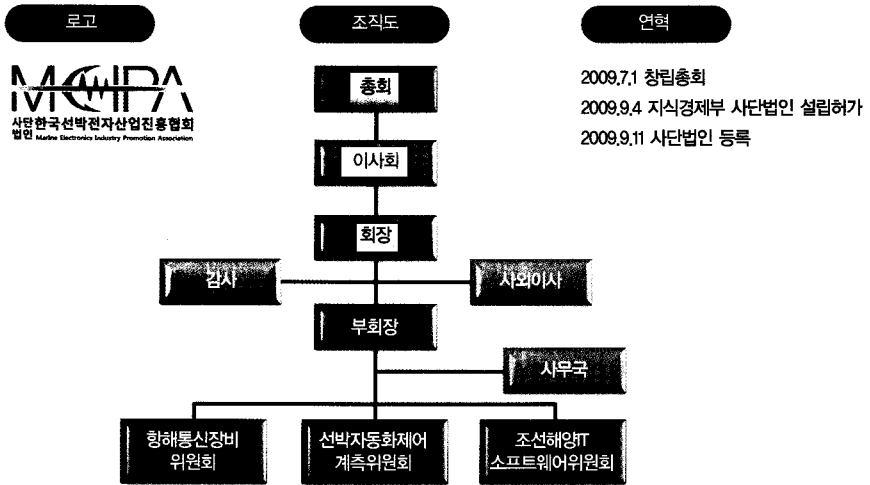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는 한국선박전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박전자와 IT융합을 통해 IT조선

융합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차세대 한국 조선산업을 세계제일의 산업으로 유지 발전시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 선박전자산업과 IT조선 융합산업을의 진흥을 위한 제도 조사 및 연구 수행
- 선박전자산업과 IT조선 융합산업을의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 선박전자산업과 IT조선 융합산업을의 기술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
- 선박전자산업과 IT조선 융합산업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및 운영
- 선박전자산업과 IT조선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R&D 로드맵 작성과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 제언
-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진흥사업 추진
- 회원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업 추진
- 선박전자 및 IT조선 융합사업자의 해외협력을 지원
- 국내외 선박전자, IT조선 융합관련 교육,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여
- 선박전자 및 IT조선 융합기술자격 규정
- 기타 선박전자산업과 IT융합 산업을의 진흥과 협회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 2.3 설립경과 및 조직과 회원

세계 조선산업을의 환경변화와 한국선박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체와 한국해양대학교는 지식경제부 지역발전포럼사업 워크숍에서 선박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인 결과, 2009년 6월 17일 협회의 창립발기에 동참한 기업체 대표와 대학관계자가 한국해양대학교에



[그림 1] (사)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로고와 조직도 및 연혁



[그림 2] NMEA와 교류 및 2009 IT엑스포 참여

서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7월 1일 기업체와 학계 및 정부관계자들이 부산시의회 강당에서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9월 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9월 11일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창립총회에서 (주)한국CMR 김은봉 대표이사를 협회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구성하고 항해통신장비위원회, 선박자동화제어계측위원회, 조선해양IT소프트웨어위원회 분과를 설치하여 52개의

회원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2.4 주요활동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가 출범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활동들을 수행했다. 먼저 NMEA2000 등 세계의 선박전자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미국선박전자협회(NMEA)의 기술이사를 초청해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대형조선소를 방문하여 기술

교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미국 NMEA를 방문하여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선박전자산업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해 2009년 IT엑스포에 회원사들이 공동부스를 마련하여 참여했으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선박전자 국제컨퍼런스를 주관하고 관련 업체와 정부관계자 및 교수 등을 초청해 국내의 선박전자산업 동향 및 전망을 위한 회원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2.5 중점 추진사업 계획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은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선박전자 관련 기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많아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선박전자 IT융합 기업을 집약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소수 기업체의 산발적인 R&D 방식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통합된 기술개발 및 판매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세계일류 전문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사업은 정부의 IT조선 융합 분야의 R&D 계획과 연동하여 선박전자IT융합산업의 중장기 로드맵

을 작성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로 첨단 조선분야에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조선해양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산학연관의 기술교류를 위한 포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3. 맺음말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는 e-Navigation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R&D 로드맵을 작성하고, 교육 및 포럼사업 등을 통해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의견을 결집하여 국내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미국선박전자협회(NMEA), 국제선박전자협회(IMEA) 등과 교류를 통해 우리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다. **TTA**